

“투수 덕... 포수 덕” KIA ‘사랑의 배터리’



한승택



양현중 SK전 7이닝 호투...시즌 7승
양 “승택이 리드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
한 “에이스 공 3년 받으니 저절로 공부”
선배 훈훈한 덕담, 젊은피 성장 견인

팀의 승리를 책임지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양현중. 그는 팀의 에이스이자 후배들을 키우는 스승이다.

양현중은 지난 18일 SK와의 홈경기 선발로 나와 7이닝을 6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막으면서 4-2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팀의 연패를 끊은 그는 개인 6연승에도 성공했다.

이날 양현중은 감기에 걸려 최악의 컨디션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격적인 SK 타자들을 맞아 과감한 승부로 정면 돌파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특유의 힘 있는 직구와 예리한 체인지업으로 ‘양현중다운’ 경기들 한 양현중은 경기가 끝난 뒤 승리의 공을 포수 한승택에게 돌렸다.

양현중은 “승택이 리드대로 던지는 것 같다. 승택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시험 전에도 투구 패턴에 대해 주문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따라간다”며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승택이한테 의존하는 게 큰 것 같다. 승택이 정말 많이 늘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승리를 합작한 배터리에게 고마움을 전한 양현중. 그런데 한승택은 양현중에게 감사하다.

“현중이 형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영광이다”며 “2016년에 내가 23살이고 처음 1군 무대를 접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형의 공을 받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다. 3-4년째 하다 보니까 현중이 형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아니까 오늘 이렇게 안 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며 대치해 된다. 3년 동안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에이스’와의 경기는 긴장감도 더 크고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다.

한승택은 “현중이 형이 요즘 연패 중이거나

중요할 때 많이 나간다. 팀의 에이스니까 내가 자칫 볼 배합 미스나 중요한 상황에서 안 일하게 생각해서 게임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더 긴장된다”며 “에이스니까 더 잘 던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나도 블로킹 실수 하나 등으로 게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부담되고 더 신경 쓰게 된다”고 언급했다.

에이스와의 실전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한승택은 자신의 배움을 ‘젊은 투수진’에게도 전달하고 있다.

한승택은 “워낙 경험 많은 선배라서 경기를 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 경험이 덜한 어린 투수들과 대화할 때면 ‘현중이 형은 이렇게 하더라. 경험 속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며 “나도 현중이 형한테 배우고 있고, 배운 걸 투수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중이 형 입장에서 투수들에게 직접 말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이야기할 부분도 있는데 현중이 형이 투수 최고참이기도 하니까 바로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럴 때면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KIA 투수 최고참 양현중은 ‘경험과 애정’으로 팀의 미래도 키우고 있다.

한승택은 “포수는 다들 경험이라고 한다. 나도 처음에는 눈 앞의 상황에만 쫓겨서 했는데 벤치에서 과감한 승부를 주문하시고, 시험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넓어졌다”며 “예전에는 이 타석만 막아야지 했는데 지금은 점수차, 이닝, 초반, 후반, 타자 컨디션, 대타로 누가 나올 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처음 풀타임 시즌을 하느라 부족하고 힘든 것도 많지만 올 시즌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중



호날두 한국 온다

내달 K리그 올스타-유벤투스 대결

덕아웃 T 특특 ‘발등에 파울 타구’ 안치홍 “1cm때문에 살았어요”

▲번호가 어색해요 = KIA가 19일 SK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엔트리를 변동했다. 고졸 루키 장지수를 말소하고 육성군 신분이었던 고졸 2년차 우완 김승범을 등록했다. 처음 1군에 등록돼 훈련을 한 김승범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냐고 선배들에게 연락을 했었다. 그래도 형들과 친하고 다들 잘해주셔서 훈련하면서 부담되는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등 번호가 어색하다”고 웃었다. 육성 선수로 016번을 달았던 김승범은 선수 등록과 함께 49번을 새로

받았다. 그는 “마운드에서 싸움닭이다. 올라가면 자신 있게 잘할 것 같다. 많이 버리고 있었다”며 “힘 있는 직구와 젊음으로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cm때문에 살았어요 = 안치홍은 지난 16일 롯데와 원정경기에서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왔다가 부상상으로 교체됐다. 안치홍은 자신의 파울타구에 왼쪽 발등 부위를 맞으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었다. 검진 결과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지만 안치홍은 이후 19일 경기 선발 라인업에도 이

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초 선발 출장을 준비했지만 수비할 때 통증이 심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안치홍은 “타격 연습은 했는데 수비할 때 통증이 있다”며 “1cm만 비켜났어도 복사뼈 부위에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다행이다. 곧 좋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눈치껏 치겠습니다 = 지난 18일 은퇴 의사를 밝힌 이범호가 19일 선수단에 합류해 취재진 앞에 섰다. 이범호는 앞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

중한 뒤 1군 엔트리에 등록, 2000경기에 부족한 5경기를 채울 예정이다. 이범호는 “(마지막 경기에 나가게 될 때는) 찬호를 못 빼니까 형우를 빼야죠”라며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또 “(남은 경기에서 너무 잘하면)나는 흥분하고 팬했는데 팬이 팬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눈치껏 치겠다.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는 것이다(웃음)”며 “은퇴는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타석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마지막 타석에 들어갔을 때 많은 팬분이 박수 쳐주시면 마지막 타석이 (야구 인생에) 제일 좋은 타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고 팀워크 ‘광주 FC’

K리그2 15R 베스트 팀 선정
이도뎀·펠리페·이한도 ‘베스트 11’



이도뎀 펠리페 이한도

광주FC가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팀과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4-1의 대승을 거둔 광주가 베스트팀이 됐고,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또 팀의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끈 펠리페와 이도뎀, 이한도는 베스트 11에 등극했다.

펠리페는 1-0으로 앞선 후반 13분과 후반 27분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공격수가 됐다. 멀티골을 기록한 펠리페는 12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부산아이파크 이정협이 9골로 2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하다 씨름 전환? 19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의 아레나 폰치 노바에서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베네수엘라의 아르키메데스 피구에라(왼쪽)가 브라질의 페르난지뉴를 태클로 저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 경기에서 3골을 넣었으나, 비디오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와 반칙으로 2골이 무효됐고 1골은 반칙판정을 받아 0-0으로 비겼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1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호날두를 앞세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클럽 유벤투스가 K리그 선발팀(이하 ‘팀 K리그’)과 서울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를 오는 7월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정구리그 세리에A(35회)와 코파 이탈리아(13회) 최다 우승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두 차례나 정상에 오른 명문 팀이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번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하는 유벤투스 선수단은 호날두를 비롯해 지난 시즌 세리에A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1군 선수들로 꾸려진다.

양 측은 이번 친선경기 개최에 합의하면서 호날두의 출전을 보장하는 조건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벤투스는 1996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이후 23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호날두의 방한은 12년 만이다. 호날두는 2007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FC서울과 친선경기를 하러 한국 땅을 밟은 바 있다.

호날두는 프로축구연맹을 통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오는 7월 K리그와의 멋진 경기를 통해 한국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팀 K리그’는 K리그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팬 투표 등 선수 선발 방식과 경기 진행 방식, 입장권과 관련한 정보 등은 추후 확정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유럽 명문 클럽이자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로 구성된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통해 K리그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잠재적인 K리그 팬층에 K리그의 열기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